

포천시 문화예술단체장 ⑦

미술문화회장 손진홍

‘글놀이’에 초대합니다!

1984년 포천시에 부임하여 현재까지 포천관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송우초등학교 교감에 이어 영종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중인 손진홍(사진·55) 미술문화회장을 만났다.

손 회장은 포천문인협회 창립 회원이며 포천협회 창립 이전에 포천예술인동우회 문학분과에서 활동해왔다. 문학분과가 활성화되어 미술문화회로 새롭게 탄생했다. 미술문화회로 탄생하기까지는 강돈희 시인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한다.

초창기 포천예술인동우회 문학분과는 학교 교사들이 주축이 되었으나 2~3년이면 포천을 떠나게 되어 문학분과 활동이 어렵게 되자 지역에 살고 있는 문인들과 함께 활동하기 시작했다. 미술문화회 활동과 포천문인협회 창립 등으로 포천 관내 학생들은 각종 백일장대회를 통해 글쓰기 습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미술문화회는 현재 20여명이 회원이 등록돼 있지만 10여명이 주로 활동하고 있다. 시를 좋아하고 시를 써보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있다. 미술문화회는 2006년 미술문화 제17집을 세상에 선보였다.

1989년 제1집을 시작으로 IMF 당시 어려워서 한 해 거른 것을 제외하고 매년 문학지를 발간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이 없어 걱정이 많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뜻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포천시로부터 지원받던 예산이 올해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3년을 지원받으면 1년은 쉬어야 하는 규정때문이라고 한다.

미술문화회의 주요 활동으로 연말에 개최하는 시화전을 들 수 있다.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하면 포천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여 관람하고 격려도 해준다. 미술문화회 출판기념회를 겸해 실시하는 시화전에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붐빈다. 처음에는 포스터를 직접 제작하여 붙이고 다녔다고 한다.

포천예술회의 창립으로 미술문화회도 잠시 혼란스러웠던 적도 있다고 한다. 손 회장은 그러나 잘 극복하여 지난해에는 포천예술인동우회가 주축이 되어 문학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때 관내 솔로무용회, 독바위무용회, 문인협회 회원과 미술문화회 회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모처럼 포천의 문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귀한 자리가 되기도 했다.

손 회장은 그러나 아쉬운 것은 포천에 뚜렷한 리더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포천의 문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문인협회가 좀더 큰 시각으로 각 문화회를 감싸 안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 문화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문인협회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포천문학의 정체성에 대해 손 회장은 지금까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며 포천의 뿌리의 중요성에 대해 뜻 있는 포천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강돈희 사무국장의 취임이후 2004년도에는 포천예술인동우회 문학분과를 ‘미술문화회’로 격상시켜 본격적인 문학회로서 새로운 문화로 출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회고한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즐거운 글쓰기를 위해 ‘생활 속의 즐거운 문학’이란 구호를 핵심으로 삼고 이를 추구하는 작고 소박한 문학회가 되었고 포천 문학의 새 지평을 여는 첫 시화전인 제1회 미술 시화전’을 성공적으로 치러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미술문화회 현안사항에 대해 손 회장은 특별하게 현안사항을 말할 수는 없지만 돈을 걱정하지 않는 회원들이 서로에 대해 공감하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포천시에 대해 바라고 싶은 것은 1년에 1회 작품집을 발간하는데 자금을 확보하여 든든하게 마음놓고 작품활동 하려 하는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포천시민들에게 손 회장은 누구나 사람들은 시를 좋아한다. 두려워 하지 말고 미술문화회에 와서 ‘글놀이’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서로 좋은 놀이가 되면 된다. 그러다보면 쓰고 싶은 생각도 늘 것이다. 글놀이라는 생각으로 미술문화회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58

대신이 뇌물을 밝히면 작은 벼슬아치들이 무엇을 본받겠습니까?

선조가 경연에 납시었을 때 노수신과 수찬 김성일이 함께 입시하였다. 선조가 신하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요즘 선비들이 도무지 염치라곤 없었으니 어찌서 그러한가?” 김성일이 곁에 있다가 이따기었다.

“대신이 뇌물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작은 벼슬아치들이 무엇을 본받겠습니까?” 선조가 깜짝 놀라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의정 노수신이 나에게 담비 가죽으로 만든 장옷을 뇌물로 받았습니다. 이는 벼슬을 팔아 뇌물을 받은 것이니 어찌 정승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선조가 깜짝 놀라 되물었다.

“대신이 뇌물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작은 벼슬아치들이 무엇을 본받겠습니까?” 선조가 깜짝 놀라 되물었다.

“수찬의 말이 옳습니다. 신의 어머니가 늙고 병이 많아 겨울만 되면 추위를 참지 못합니다. 그러하여 번방에 장수로 있는 친척에게 담비가죽으로 만든 장옷을 부탁하여 늙은 어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박순이 노수신을 옹호하며 말했다.

“노수신은 청렴한 사람이니 단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노수신이 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는 것으로 효성이 자자하니 어머니의 말을 감히 어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일은 아마도 수신의 아우 극신(克愼)이 저지른 일일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난 선조가 말했다.

“파인의 생각도 그러하오, 우의정이 어찌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자 김성일이 다시 아뢰었다.



리효중 포천한사사 대표

“우의정이 어머니를 섬길 때는 마땅히 기쁜 얼굴로 대해야 하지만, 어찌 나라의 벼슬을 팔아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노수신은 마침내 임금에게 절하고 사죄하였다. 선조는 두 사람을 모두 칭찬하며 말했다.

“대간이 곧은 말을 하고 대신이 스스로 자백하였으니 모두 체면을 살렸소, 두 사람 모두 가상하다.” 경연이 끝나자 노수신이 밖으로 물러 나와 김성일에게 말했다.

“그대를 보니 옛 성인의 도(道)를 다시 보는 것 같네.” 노수신은 평소 김성일과 친하게 지냈는데 이 일이 있을 후로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여겼다.

하루는 선조가 신하들에게 물었다. “나는 옛날의 어느 임금에 비할 수 있는가?” 정이주(鄭以周)가 답하였다.

“마땅히 오 임금과 순 임금에 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조가 다시 김성일에게 묻자 그가 답하였다. “요순 같은 임금이 될 수도 있고, 결주(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조가 깜짝 놀라 물었다. “요순과 결주가 같은가?”

“성상께서는 본성이 고명하시니 요순같은 임금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성인이 체하시어 신하들의 율곡은 말을 거절하시는 병폐가 있습니다. 이러한 병폐로 인하여 바로 결주가 망했습니까?” 임금이 노한 빛으로 안절부절못하니 신하들이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 때 유성룡이 앞으로 나서며 아뢰었다. 요순에 비유한 것은 임금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결주에 비유한 것은 임금을 조심시키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선조는 노한 빛을 거두고 술을 사한 뒤 자리를 파하였다.

김성일(金誠一) 1538년(중종33)~1603년(선조26) 호는 학봉(鶴峰)이다. 1556년(명종11) 아우 복일(復一)과 함께 이황을 찾아가 학문을 익혔으며, 1564년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서 수학하였다. 그후 다시 도산으로 돌아와 이황에게서 수학하였다. 1588년 중랑관에 병과로 제직된 후 여러 요직을 거쳐 1584년 나주목사가 되었다. 1590년 통신부사(通信使)로 일본에 파견되었다가 이듬해 돌아와 일본이 침입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를 올렸다. 그후 대사성, 부제학 등을 지냈으나 1592년 경상우도부도감사로 재직하던 중 임진왜란을 맞았다. 이때 의병장 박재우(郭再祐)와 함께 의병활동을 고구하고, 그해 8월 경상좌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가 곧 우도관찰사로 다시 돌아와 의병의 규획과 군량미 확보에 전념하였다. 1593년 경상우도순찰사를 겸하여 도내 각 고을의 전투를 돌리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 ‘학봉집’이 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앨 졸슨(Al Jolson),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보드빌 엔터테이너'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 워싱턴으로 이주한 앨 졸슨(Al Jolson, 1886~1950)의 본명은 에이사 욘슨(Asa Yoelson)이다. 엄격한 성가대 지휘자였던 아버지의 강요로 유대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곤 했던 졸슨의 꿈은 성가대에 있지 않았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9살에 여고고 나서 아버지의 희망과는 반대로 시내에 있는 보드빌 극장의 쇼를 몰래 구경 다니며 대중적인 가수로서의 꿈을 키워갔다. 결국 보드빌 순회공연단을 따라 집을 떠나게 되면서 보드빌리언으로써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이후 졸슨은 흑인 분장을 하고 노래 부르는 민스트럴 쇼의 일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음악에 대한 갈망이 깊어져 결국 탈퇴를 하고 한동안 재즈에 심취한다. 자신에게는 전혀 새로운 음악이었던 재즈를 접하고 나서 음악적으로 성숙해진 졸슨은 1911년 브로드웨

이 ‘윈터가든 극장(Winter Garden Theatre)’에 발탁되어 레뷰 활동을 시작한다. 그곳에서 〈신바드(Sinbad)〉 등 레뷰 작품에 출연하면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는 졸슨은 자신의 노래 대중에 유망한 곡이나 때때로 신곡을 들려주었고 관객들은 더욱 환호했다. 당시 보드빌 무대에서는 한 사람의 스타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졸슨의 공연에서 관객들은 보드빌이나 레뷰의 흥극 내용이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다른 출연자들의 노래가 또한 신통치 않더라도, 졸슨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했다. 따라서 공연 도중에 모든 출연진을 무대 위에 편하게 자리 잡게 한 다음 객석에 불을 밝히고 관객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는 것 자체가 관객을 열광하게 했다.

결국 졸슨 자체가 극적인 드라마였으며 감미로운 음악이었던 것이다. 졸슨은 노래를 부르기 전에 관객과 대화를 나누면서 종종 ‘여러분은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You ain't heard nothin' yet)’ 라는 확신찬 찬 말을 하곤 했다. 이 말은 브로드웨이로 본격적인 뮤지컬 시대가 열렸던 1927년에 최초의 유성영화였던 〈

재즈 싱어(The Jazz Singer)〉의 성공과 함께 지금까지 들은 건 별게 아니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당시 할리우드 영화계에 브로드웨이 뮤지컬 바람을 일으킨 것으로 유명하다.

졸슨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두 편 있다.〈졸슨 스토리(The Jolson Story, 1946)〉와 속편격인 〈졸슨 싱스 어게인(Jolson Sings Again, 1949)〉. 대부분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들이 사후(死後)에 만들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졸슨이 생존하고 있을 때 두 편이 다 만들어졌다는 것은 엔터테이너로써 그의 카리스마와 비중을 짐작케 한다.

비록 두 영화 모두가 다소 사실과 다르게 묘사된 점도 있지만 당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으며 오늘날에도 그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만들어지고 있다. 앨 졸슨에게는 상당한 무수익자가 따라다녔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엔터테이너’라는 명칭과 함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엔터테이너’, ‘보드빌 무대의 가장 위대한 엔터테이너’ 등 20세기 전반기를 휘젓는 보드빌리언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세계 최초의 유성영화이며 뮤지컬 영화의 주인공으로 선택된 위대한 배우이기도 하다.

이날 총회는 지역문화창달과 문화원 발전에 공이 많은 변진수 향토사 연구위원을 비롯한 관계인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한 이날 총회는 지난해 감사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 2007년도 주요 사업계획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2월 27일 유림회관에서 내빈, 교문 및 자문위원, 임·회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2월 27일 유림회관에서 내빈, 교문 및 자문위원, 임·회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2월 27일 유림회관에서 내빈, 교문 및 자문위원, 임·회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 선진문화의식제고

포천문화원 정기총회, 예산 3억7천1백97만원 승인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2월 27일 유림회관에서 내빈, 교문 및 자문위원, 임·회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2월 27일 유림회관에서 내빈, 교문 및 자문위원, 임·회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2월 27일 유림회관에서 내빈, 교문 및 자문위원, 임·회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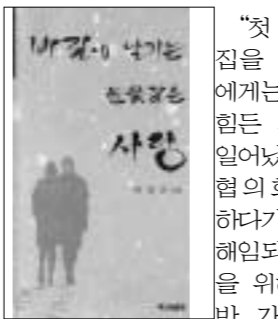
포천문화원 정기총회

백97만원을 승인했으며, 문화학교 지속 운영을 비롯하여 향토문화원 사업 추진, 제2회 반월문화제를 한시백일장, 휘호대회 등과 연계하여 종합문화행사로 개최하고, 포천 문화, 문화사관 책자발간, 특수시책으로 학술세미나개최, 가족 시 낭송 경연대회, 향토사 바르게 알기 경시대회, 좋은 책 읽기운동 전개 등 올해의 사업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및 선진문화의식제고 등 한 단계 발전하는 문화원으로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바람에 날리는 눈꽃같은 사랑’

대진대학교 박정근 교수 두 번째 詩集 발간



박정근 교수의 두 번째 시집

“첫 번째 시집을 내고 나에게는 견디기 힘든 사건들이 일어났다. 교수 협회 회장을 해임되자 교권을 위해서 2년 반 가량을 투쟁을 해야 했고, 작년 오월에는 사망으로 동생인 시인 박영근이 세상을 떠났다. 일상적인 것에 매달리다, 갑자기

고통스러운 실존적 상황에서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다. 이런 충격이 지나가자 이에 대해 시적으로 풀어 내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왔다.”

대진대학교 영문학과 박정근 교수(사진)가 3월5일 두 번째 시집 ‘바람에 날리는 눈꽃같은 사랑’(사진·제3의 문화)을 출간하면서 밝힌 서문이다.

이번 시집은 ▶바람에 날리는 눈꽃 같은 사랑▶가난한 시인의 죽음▶나그네의 비가▶자유의 노래▶시가 존재하는 이유 등으로 나뉘

69편의 시를 수록했다. 박정근 교수는 1955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났으며 익산 남성고등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경대학교, 서강대학교에서 학사,석사과정을 마친 후 고려대 영문과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했다.

2005년 창조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시단에 등단했으며 현재 한국문인협회, 이해조문학회 회원이며 포천문인협회 부회장, 한국세시포어학회 편집이사, 제3의 문화 편집위원으로 활동중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92)

어리석은 「도깨비」

도깨비를 속이고 부자가 된 어느 노인의 이야기는 우리를 웃겨 재미있다. 옛날 포천 고을에 어느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심심하여 도깨비와 사귀어 밤마다 도깨비가 놀러 와서 밤새 놀다가고는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샘물에서 세수를 하다가 샘물 속에 비친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얼굴색이 붉어지고 뺨이 푹푹하다고 하지 않느냐? 「친하네 닳는다」는 속담이 맞아 떨어지는 모양이라고 생각한 할아버지는 빠른 시일 안에 도깨비와 이별을 할 공리를 하게 되었다 한다. 저녁에 놀러 온 도깨비에게 할아버지는 질문을 하였다 한다.

“도깨비아, 도깨비아, 네가 제일 싫어 하는게 무엇이 달까? 말해 보라...” “아, 재가 싫어 하는 거 말아...” “아, 그렇다니가 뭘 제일 싫어 하노?” “그러야, 소의 피가 제일 무섭지요” “그래?” “그럼, 할아버님은 뭐가 제일 무섭고 싫으시지요?” “그야, 이리다 뿐인가? 사람은 돈만 있으면 아니 되는 일이 없다지만...돈 때문에 의리도 상하고 부모 자식도 몰라보고 벼슬도 사고 팔고...아주 돈이 나쁘고 무서운 놈이지...” “그럼이요?”

그 날 저녁은 그렇게 헤어지고는 도깨비와의 석별의 잔치는 시작되었다 한다.

“도깨비를 닳아? 도깨비가 되다니...” 도깨비로 부터의 탈출작전은 개시되었다. 밤이 되기 전에 푸주를 찾아가서 소의 피를 한 초롱 갖다가는 은통 마을 문턱에서부터 마당, 문설주, 방문에 이르기까지 소피를 뿌렸다.

“이놈, 도깨비 놈아 고약하고도 못된 놈 같으니 그대 놈이 나와 친하여 심심함을 면해 줄았지만 도깨비를 닳은 내 얼굴을 만들어? 네 이놈 소피 먹고 죽어 버라” 버럭 성을 내며 도깨비 퇴출작전이 전개되는 모습을 남 모르게 진행시키고 있었다. 나중에 일어날 깜짝 놀랄 일은 상상도 못하면서 말

이다. 밤이 어두워 왔다. 도깨비는 할아버지의 도깨비 퇴출 작전을 알지도 못하고 그 날도 할아버지 덕 사랑으로 도깨비는 웃노래를 부르며 오고 있었다.

“아니, 이게 뭐지? 아니, 소의 피가 아닌걸... 나를 쫓아 널 모양이군 할아버지... 내 친구...영감님이지...” 도깨비는 할아버지가 사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뿌려진 소피를 보고 기절초풍을 하고는 도망간 것은 물론이었다.

“영감님 기다리세요, 당신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게 돈이라고 했지...?영감님 돈벼락 좀 맞고 이별합시다요.” 큰 소리를 외치며 할아버지 댁을 뛰어 멀리 나와서는 그 길로 벼슬 팔아 부자가 된 박대감 댁 돈창고에서 돈을 마차에 실어다가 할아버지 댁 집 뜰레에다 쌓아 놓았다.

이 이야기를 사설로 ake를 사람 없을것이다. 내 고향 포천에서 전해오는 옛 이야기 한 도막이다. 웃고 또 웃어 「행복의 날」을 맞자.

초대 漢詩

謹賀丁亥年



學林 朴東奎 (영복도내대학장)

樂迎丁亥日昇東(락영정해일승동) 家眷高堂總會同(가권고당총회동) 정해년 아침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을 즐겁게 맞고 가족이 고향에 함께 다모였네.

茶禮高擎先祖上(다례고경선조상) 新年歲拜大宗中(신년세배대종중) 차를 조상님께 공경이 드리오며 신년세배를 중중 어른께 세배를 드리네.

威親訪問居隣洞(척친방문거린동) 老友交遊篤義崇(노우교유독의숭) 인근동에 사는 친인척을 방문하며 노우와 교류하며 의리와 숭배를 돈독히 하네.

旨酒佳肴賓接待(지주가효빈접대) 饒美果實孟盈隆(명과과실맹영용) 지주와 가효로 오신 손님을 잘 접대하는데 소반위에 떡과 과일이 가득히 차려졌구나.